

하늘이 내린 복

• 신년특간 •

농력 을미년



思故国

遥望故国泪花飞，魂萦梦绕知是谁，
不知亲人可安康，不知山水可青翠。
烟雨蒙蒙江南美，渔歌唱晚行碧水，
四季如春云贵美，月下竹林人自醉。
牛羊遍野塞外美，骏马飞驰彩云追，
冰峰屹立藏原美，神殿檐下风铃脆。

遥望故国思绪飞，大好山河面貌非，
世风日下人心变，古风清纯唤不回。
危难之中神慈悲，大法震撼善念归，
路不拾遗太平世，夜不闭户更祥瑞。
真善忍能使人心美，源远古风又璀璨，
重德行善福相随，人间再映天堂辉。

명후이 정기 간행물

[Http:// www.Minghui.org](http://www.Minghui.org)

• 본기 안내 •

- ◎ 하늘이 내린 복—하늘 아래 첫 복
- ◎ 복이 나의 집에 왔다
- ◎ 대복선—나의 할아버지가 하신 이야기

Contents

목록

• 서두일문 3

하늘이 내린 복——하늘 아래 첫 복

• 건강장수 4

미국 류학 녀석사 두번의 인생 복과
화의 대 역전 / 팔순 수련 늦지 않으면
무병으로 몸이 가볍다

• 세계풍채 9

파룬따파 세계에 널리 전해지다
파룬따파일——세계 함께 경축하는 날
세계각지에서 온 문안과 감사

• 과학견증 13

과학연구 일군: 초상적인 과학을 견증

• 백성 신변의 일 17

시맥과의 악연을 선으로 해결

• 가홍유도 23

대법을 수련하니 온 가족 한 없이 기쁘다

• 천상인간 28

현위 관리가 두려워하는 “좡자오얼(撞招儿)”



• 선념복보 30

대법제자 보호하고 현장 온 가족 복
받았다 / 정의로 파룬따파를 지지하
고 신문사 사장 온 가족 복 받았다 /
복이 나의 집에 왔다 / 바람막는 유
리에 걸려 있는 대법 호신부

• 민간예언 36

대복선나의 할아버지가 하신 이야기

• 골목의론 39

나는 신용을 지키는 중국 사람이다

• 거짓말 폭로 41

눌러도 넘어지지 않는 벼와 타지 않는
음료 병

• 고풍청순 44

“도둑촌”에서 더는 훔치지 않았다

인터넷 봉쇄를 돌파하고 진상을 보세요

해외 전자 우편으로 freeget.one@gmail.com 우편을 보내 되 내용은
임의로 제목을 임의로 (비우지 마세요), 약 10분 후 인터넷 사이트 주소 하나를
얻게 되며 인터넷 사이트에 오른 후 아래 쪽의 톤색 Download 단추를 눌러 돌
파 프로그램을 내려 받고 내려 받은 돌파 그램을 두번 치면 인터넷 봉쇄를 돌파
하여 안전하고 자유로이 더욱 많은 진실한 소식을 볼 수 있습니다.

밍후이왕을 방문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www.minghui.org

고국을 그리다

고국을 바라보니 눈물이 흐르네
령혼이 꿈속에서 맴도는 것을 누가 아는가
친인은 건강하고 무사한지
산과 물은 맑고 깨끗한지
안개비가 자욱한 아름다운 강남
어부의 노래 저녁무렵 푸른 물을 가르고
사계절 봄 같은 아름다운 운남 귀주
달빛 아래 죽림속에서 사람은 스스로 취하네
소와 양떼가 가득한 아름다운 변방
준마가 달리자 구름이 뒤쫓고
얼음 봉오리 우뚝 솟은 아름다운 서장 고원
신전의 지붕아래 방울 소리 낭랑하네

고국을 바라보며 깊은 사색에 잠겼네
아름다운 강산의 면모는 사라지고
세상의 기풍이 날로 나빠지고 인심은 변하여
맑고 순수한 고풍을 불러 되돌릴 수 없네
위험한 재난에 신이 자비를 베풀어 주어
대법의 진감하에 선념이 돌아왔네
기풍이 옳바른 태평한 세상은
사회가 안정되고 인심이 좋아 더욱 상서롭네
쩐싼련은 사람의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고
원원 고풍은 다시 찬란하게 눈부시며
덕을 중요시 하고 선행을 하자 복이 잇따르니
인간에 다시 천당의 빛이 비치네

**밍후이 정기 간행물은 자비로 인쇄하여 만드니
널리 전하여 보시면 공덕이 무량합니다**

세계를 놀래운 《9평 공산당》

2004년 11월, 해외 매체 “대기원시보(大纪元时报)”에서 발표한 계열사론 《9평공산당(九评共产党)》은 세계를 놀래웠다.

《9평》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로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폭로하고 중공 폭력통치의 산더미같은 죄악을 폭로했다: 반혁명 숙청, 토지개혁, 반혁명진압, 반우파, 대약진, 대기근, 4청, 문화대혁명, “64” 학생 도살, 파룬궁 박해 등등. 평화시기 중공의 주기성적인 정치 운동에서 중국사람 절반 이상의 가정을 박해하여 8000 여만명 중국 동포가 생명을 잃었는데 두 차례 세계대전 사망인수의 총합계를 초월하였다.

《9평》은 염황자손(炎黃子孙)을 불러 일으키며 해내외에서 탈당의 외침소리가 울려 퍼졌다. 2015년 2월까지 이미 1.9억 중국 사람들이 리지와 량지의 선택으로 중공조직(당, 단, 대)에서의 탈출을 성명했다.

선량한 중국 사람마다 역사의 거변앞에서 명석한 선택을 하고 자신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하기 바란다.◇



2015년 1월 17일 홍콩에서 대류 탈당을 성원하는 대형 시위행진

▶ 서두일문

하늘이 내린 복——하늘 아래 첫 복



북경 공왕부(恭王府) 밀운동(秘云洞) 안에는 “하늘 아래 첫 복원(天下第一福源)”이라 불리우는 소중한 복자 돌 비석이 있다. 매일 복을 청하려 이 곳에 오는 사람은 끊임 없으며 사람마다 친히 손으로 이 “복” 자를 만지면서 “복운을 받으려 하는” — 이 “복” 을 하늘이 내린 복”이라고 한다.

“하늘 아래 첫 복”的 유래는: 강희(康熙) 12년, 효장황태후(孝庄皇太后) 60 생신(大寿)을 맞이 하려고 하는데 의외로 갑자기 병상에 몸져 누웠다. 효장황태후는 어려서 모친을 잃은 강희대제(康熙大帝)를 정성껏 키웠다. 효장황태후가 중병에 시달리는 것을 본 강희는 할머니를 구하려는 절박한 마음

을 필에 담아 단숨에 할머니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기울린 이 “복” 자 (그림)를 쓰고는 천하의 재간이 있는 사람을 소집하여 커다란 청석에 새겨놓고 아울러 이 “복” 자 비석을 등에 지고 천신(天神)에 제사 지냈다. 하늘에 령이 있다고 효장황후의 신체는 기적처럼 회복되었다.

효장태후는 이 “복” 자를 얻은 후 모든 병이 전부 사라졌고 15년 후, 75세 고령에 천수를 다했다. 후에 강희는 몇 번이고 다시 어필을 들었지만 도리여 더는 그속의 신운(神韵)을 써내지 못했다. 그리하여 이 복은 “하늘이 내린 복”이라고 민간에서 널리 전해졌다.

“하늘 아래 첫 복”의 신기함은: 옛말에 “복이 있으면 꼭 장수하고 장수하면 꼭 복이 있고 복이 있으나 장수하지 못한 것은 향수할 복이 없기 때문이다”고 한다. 하지만 “복”, “수” 두 글자의 형태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로부터 종래로 그 어느 서법가가 “복” “수”를 합쳐 하나로 쓰지 못했다. 이 어보(御宝) 오른 반쪽은 바로 왕씨즈(王羲之) 란정서(兰亭序) 중 “수”자의 서법이다. 저도모르는 사이에 고금을 놀래운 “복수(福壽)”를 합친 글자를 창조했다. 민간에서는 “복속에 수가 있고 복수 두가지가 다 있는 것이 5복의 기본이자 만복의 근원”의 복이라고 한다.◇

미국류학 녀 석사 두번의 인생 복과 화의 대 역전

인생 다섯 가지 큰 복에서 “건강, 장수” 가 첫 복이다. 건강은 인생의 가장 보귀한 재부이고 평안은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다. 만일 건강이 없다면 그렇다면 거액의 재산이 있고, 모든 뛰여난 재간이 있어도 쓸 방법이 없다. 유독 건강과 평안만이 인생의 진정한 쾌락을 향수 할 수 있다!



오른 쪽 두 번째 다이이웨이

다이이웨이(戴宜葳)는 대만에서 태여나 자란 예쁜 녀자 아이다. 학업이 특히 우수하고 시험 운수도 특별히 좋았다. 큰 시험일 수록 운수는 더욱 좋아 고급 중학, 대학은 모두 사람마다 부러워하고 친사하는 대만의 제일 좋은 학교—대북시(台北市)립북(立北)녀 1 중과 대만 대학에서 공부했다. 출국 류학도 순풍에 둑을 단 듯이 미국(康州大学)에서 생물 기술 석사와 컴퓨터 공정 두개 석사 학

위를 받았다. 종래로 일 찾으러 다니지 않고 모두 일이 그녀를 찾아 왔다. “나의 운수는 너무나도 좋았으며 지갑이 떨어져도 누군가 주어서 나에게 돌려 주었습니다.” 이웨이는 늘 이런 느낌이였다. 하지만 순풍에 둑을 단 듯한 인생은 30 살 되던 그 해에 갑자기 대역전이 나타났다.

◆ 갑자기 닥친 차사고로 심한 내상을 입었다

911 사건 후, 미국 경제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 이웨이는 아직 필업하지 않았는데 일은 이미 그를 찾아 왔으며 높은 로임에 복리도 좋아 동학들은 모두 운수가 좋은 그녀를 부러워했다. 2005년, 이웨이가 출근하여 겨우 한달 되던 어느 날, 퇴근 길에 그녀는 차를 몰고 집으로 가고 있었다. 차량 한대가 뒤로부터 맹렬히 충돌하면서 이웨이의 차는 충돌에 전부 회손되고 사람도 중상을 입어 의사는 그녀더러 집에 돌아가 한달 휴식하라고 했다. 하지

전 세기 90년대, 광동성(广东省) 자금현(紫金县) 부근에 소문이 자자한 “도둑촌(偷盜村)” 이 있었다. 기실 “도둑촌” 은 원래 로우촌(卢屋村)이였다. 로우촌은 산과 물로 에워싸 있는 토지가 비옥한 곳이다. 마을 부근에는 시 농업위원회의 600여무 되는 과일 기지가 있다. 수확의 계절이면 붉은 사과, 금빛 바나나, 싱싱한 배……정말 즐거운 수확이였다. 하지만 이런 수확이 도리여 사람들에게 골치 아픈 문제로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온 마을 로소를 막론하고 거의 집집이 출동하여 과일을 훔쳐서 시장에 가서 팔았다. 하여 과일이 무르익을 때가 되면 당시 정부는 부득불 매우 많은 인력, 물력으로 과원을 지키고 심지어 일부 훔친 수가 비교적 많은 사람을 붙잡아 목에 패쪽을 걸고 거리에서 시위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하여도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훔쳤기에 로우촌은 사방에 소문이 자자한 “도둑촌” 으로 되였다.

1998년초, 파룬궁이 이 작은 마을에 전해왔고 매우 많은 사람들은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천, 찬, 런(真、善、忍)” 의 요구에 따라 진정한 좋은 사람이 되면서 자각적으로 더는 과일을 훔치지 않았다. 기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점차 더는 훔치지 않아 “훔치는 기풍” 은 이렇게 철저히 개변되었다. 진의 한 간부는 기뻐하면서 말했다: “파룬궁은 정말 너무 좋습니다. 나도 파룬궁 책을 사서 보겠습니다.”

로우촌과 같은 이러한 사례는 아직 매우 많다. 왜냐하면 파룬궁을 배워 수련한 마을 사람들은 서로 화목하고 서로 돋고 양보하여 고부사이 올케와 시누이 관계가 개선되면서 매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신기한 전변을 견증했고 그리고 이런 마을을 보통 “파룬궁 마을” 이라고 불렀다. ◇



파룬궁 수련생 그림: 산촌의 새 기풍

행을 하도록 가르친다. 중공은 민중을 잘못 인도하여 사람에게 선을 향하도록 가르치는 파룬궁을 중요하게 하여 대륙 사회 도덕을 몰락시켰다. 동시 중공의 탐관 오리 역시 사회를 악화시키고 부패를 이끌어 마지막엔 사람마다 모두 피해자가 되였다. 파룬궁 수련생이 위험을 무릅쓰고 진상을 말하는 것은 근본상에서 중공이 파괴한 인심과 도덕을 구하기 위한 것이며 중화민족의 미래를 구하기 위한 것이다. ◇

파룬궁은 살생과 자살을 용허하지 않는다

◆ 파룬궁은 불법수련이며 살생과 자살을 금지한다. 1995년에 출판한 파룬궁 주요저작 《전법륜(转法轮)》〈제7강〉에는：“련공인은 살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씌여 있고 《시드니법회 설법(悉尼法会讲法)》에는：“자살은 죄가 있다.”고 씌여 있다.

◆ 파룬궁의 모든 서적을 보면 “수련생더러 약을 먹지 말라”고 한 말은 한마디도 없다. 사실 파룬궁은 다만 수련과 약을 먹는 관계를 말했다. 《파룬따파 미국법회 설법(法轮大法 美国法会讲法)》에서 명확히 말했다：“사람, 당신에게 약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속인은 병에 걸리면 꼭 병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 고풍청순

古风清纯

“도둑촌”에서 더는 훔치지 않았다

진정한 태평 성세를 바란다: 당나라 정관(貞观)시기에 사회 도덕은 고상하고 정치는 투명하고 사회는 평화롭고 백성들의 삶은 넉넉하여 사회가 안정되고 인심이 좋았다. 오늘의 사회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런 태평 성세 국면에 도달 하자면 기실 어렵지도 않다. 관건은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만 한달이 지난 후 이웨이의 정황은 호전을 가져오지 않았다. 처음엔 왼쪽 반신의 제일 크게 충돌했던 곳이 비교적 아팠지만 천천히 확산되면서 모든 관절이 모두 아프고 전신이 모두 아파났다. 후엔 걷기도 매우 힘겨웠다. 조금 두려워 난 이웨이는 사직하고 대만으로 돌아가 중의를 보이려고 마음 먹었다. 사람의 소개로 그녀는 의술이 뛰여난 중의 골과 의사를 찾았다. 의사는：“당신의 관절 매 하나가 모두 어긋났기에 아픈 것입니다.”고 말하면서 의사는 또：“당신은 너무 늦어 왔습니다. 이미 오랜 상처로 변하여 나아지기 매우 어렵습니다.”고 말했다.

◆ 뼈속까지 든 병을 파룬궁을 수련하고 스스로 나았다

이 후의 나날은 정말 반복적으로 멈추지 않고 괴롭혔다. 인대는 이미 관절을 고정시킬 수 없게 되여 조금만 힘을 쓰면 또 어긋났다. 스스로 문을 열지 못하고 스스로 옷을 입지 못하고 밥 공기마저 쥘 수 없이 전신 관절은 시큰시큰 아파나 이웨이는 대단히 고통스러웠다. 더욱 심한 것은 아직 뒤에 있었다. 천천히 신경방면의 후유증이 나타나면서 그녀는 일종의 “섬유근육통증(纤维肌痛症)”이란 병에 걸렸고 통각 신경은 균형을 잃었다. 기본적인 생활마저 통제할 수 없게 되여 호흡, 체온 조절, 혈탕 조절 전부 다 혼란 상태에 빠졌다. 이웨이는 걸핏하면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조금 움직이면 전신이 죽도록 아파 어데 가나 모두 산소통을 지나고 있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 있었다.

마침 그녀가 궁지에 빠져있을 때 한 중의가 그녀에게 파룬궁을 수련하라고 건의하자 그녀는 어차피 다른 일은 할수 없게 되었으니 시험해 보려고 생각했다. 이웨이는 대만 파룬궁 수련생이 꾸린 “파룬따파는 대만에서” 란 사이트에서 《전법륜(转法轮)》책을 보았다. 이를 시간을 들여 《전법륜》을 다 보고나서 매우 격동되었고 참으로 격동을 멈출 수 없어 수련하려는念头가 생겼다.

◆ 2년간의 고통은 하루밤 사이에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깨여나 조심스럽게 시큰시큰 아픈 사지를 움직이려 하였는데 이웨이는 줄곧 잠에서 깨여나면 모두 말을 듣지 않던 손이 도리여 뜻밖에 마음대로 움직이고 아프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2년간 이웨이의 기상, 걷기, 충계를 내리는 것을 괴롭히던 고통이 전부 사라져 마치 꿈만 같았다.

깊은 진감을 받은 이웨이의 머리는 쿵쿵 울렸고 속으로는 끊임없이 생각

했다: 정말인가? 어긋난 뼈들이 서로 마찰 하던 메스껍던 그 감각은 그렇게도 실감났는데 뜻밖에 하루 밤 사이에 전부 사라지다니 과정마저 필요없이 하지만 그녀는 그래도 감히 자신이 이미 새삶의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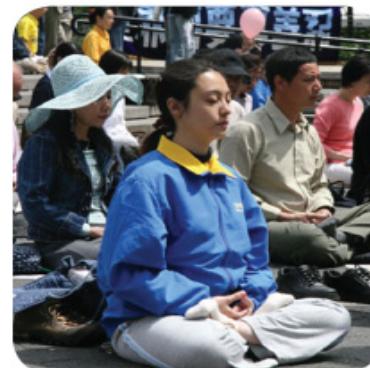
다음 날 아침 깨어나자 여전히 아픈 곳이 없자 이웨이는 이제는 정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감히 확정하지 못했다. 이웨이는 련공점으로 갔고 처음에는 한다리 가부좌로 30~40분을 앉았는데 탈구(脱臼)하지 않았을 뿐더러 더욱 거뿐했다. 이웨이는 들먹이는 내심은 멈출 수 없었다: “이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부님께서 나를 제자로 받아 들였습니다.”

◆ 8개월 수련하고 온 몸이 가벼워져 대법일에 사부님 은혜에 감사

이미 불구자 장애 보조를 신청했던 사람이 행운스럽게 파룬따파를 만나 수련에 들어서자 온 몸의 병은 하루 밤 사이에 전부 나았고 나았을 뿐만 아니라 차사고 전보다 더 건강해졌다. 원래 건강, 사업, 혼인, 가정을 전부 다 잃고 인생을 거의 결속지려 했는데 또 두번째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2008년 5월 12일, 파룬궁을 수련한지 8개월 되는 이웨이는 처음으로 “세계파룬따파 일(世界法輪大法日)” 경축활동에 참가했다. 이웨이는: “이것은 우리들이 사부님의 생신을 경축하고 사부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하루입니다. 사부님의 은혜는 크기로 영원히 보답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다만 대법을 소중히 여기면서 수련에 정진하는 것으로 사부님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고 말했다. ◇

팔순 수련 늦지 않으며 무병으로 몸이 가볍다

속담에 “집에 로인이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한다. 로인은 생활의 원천이자 육친정을 맷어 놓는 중심이다. 가정에 로인과 아이들이 있으면 하나의 공동한 귀속지가 있게 된다. 집과 얼마 멀리 떨어져 있던 어디로 가던 모두 자신의 생활 원천을 바라보게 되며 육친정이 함께 모일 기회를 찾으면서 농후한 육친정이 계속 대지에서 흐르게 한다.



다이이웨이는 정공 수련중

인민일보와 신화사하고 비교하면 중앙텔레비전 방송국의 거짓말 조작은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았다. 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한 분신자살 화면에는 매우 많은 허점이 있다. 그중 하나는 이른바 “분신자살자” 중의 한 사람인 왕진동의 화면이다. 화면속의 왕진동은 불을 달아 분신 자살한 후 그의 두 다리사이에 있는 흑색 쉐비(雪碧)병은 의외로 전혀 손상되지 않았다. 중공 매체는 이 쉐비 병에 휘발유가 담겨 있다고 하였지만 세찬 불길속에 의외로 불이 붙지 않았다. 이 불에 타지 않는 쉐비병은 위에 있는 놀러도 넘어지지 않는 벼와 추태함을 비길수 있다.

화면에서 볼 수 있는바 왕진동의 뒤편에 서 있는 경찰은 손에 멀화탄자를 쥐고 있으며 그리고 멀화탄자는 거기에 드리워있다. 중앙텔레비전의 록상중 경찰은 한 손으로 멀화탄자를 들고 한가히 왕진동의 뒤편에 서서 “내심하게” 기다리면서 왕진동이 파룬궁에 먹칠하는 구호를 외친 다음에야 멀화탄자를 왕의 머리에 씌웠다. 분신자살 사건은 원래 돌발 사건이지만 중앙텔레비전은 도리여 왕진동 등 사람의 가까운 거리 화면을 촬영할 수 있었고 그의 영문을 모를 구호를 록상했다. 모든 이런 것들은 모두 이것은 중공이 연출하고 촬영한 사기극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중공 매체가 꾸며낸 거짓말은 몇 세대 중국사를 해쳤다. 당년의 “무당만근” 거짓말로 “대약진”에 불을 질러 놓아 초래된 대기근에서 4천만 동포가 생생하게 굶어 죽었다. 그리고 분신자살로 죄를 들씌운 후, 중공이 파룬궁에 대한 박해가 격화되면서 매우 많은 파룬궁 수련생이 감옥, 로교소, 세뇌반에서 혹형 시달림을 받았고 심지어 박해받아 죽었다. 더욱 엄중한 것은 죄를 들씌운 안건은 대륙 민중이 파룬궁에 대한 증오를 선동했다. 파룬궁은 “천, 쌍, 런(真、善、忍)”을 원칙으로 하며 사람에게 덕을 중요시하고 선



류스잉 12살

의학상식에 의하면 세균감염으로 된 생명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면적 화상환자는 격리실에 있어야 하며 환자를 방문하는 사람은 격리옷, 모자, 수갑, 신갑을 신어야 한다. 하지만 기자는 직접 편의 옷을 입고 심한 화상을 입은 “류스잉(刘思影)”을 취재하고 있으니 모든 것은 연극임을 증명하고 있다!

(谷城县) 성광사(星光社) 왕밍진(王明进)실험전의 밀은 무당 4353 근이라고 과장해서 말했다. 6 월 23 일, 인민일보는 계속 달라붙었다 : 호북성 곡성 현 선봉 농업사의 밀 실험전의 무당량은 4689 근이다.

이어서 인민일보와 신화사는 줄곧 서로 갈수록 더 큰 거짓말을 방출하면서 부단히 거짓말 기록을 갱신했다. 7 월 12 일, 인민일보는 무당 7320근이라고 보도했고, 7 월 25 일, 신화사의 무당 산량은 9195 근이였다. 7 월 31 일, 인민일보에서 보도한 것은 무당 만근에 달했다. 호북성 응성현 춘광 농업사 생산대장 간인파 (甘银发)가 심은 벼는 무당량 10597근이라는 거짓 말을 방출했다. 8 월 13 일, 신화사는 뒤질세라 호북성 마성현 계건원 일사에는 “천 하제일전(天下第一田) ” 이 나타나 이른 벼 무당 산량은 36900 근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9 월 5 일, 인민일보는 광동성 련현 1.73 무 벼 밭 무당 산량은 60437 근이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

신화사와 인민일보의 너도 나도 다투는 거짓말 경쟁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웃 폐지의 사진 두장이다 : 사진속의 벼는 그렇게도 빽빽이 있어 아이들이 그 위에 앉거나 혹은 그 위에 서 있어도 벼는 여전히 넘어지지 않았다. 중공매체는 “마치도 연한 소파같다” 고 말했다.

독자는 가능하게 이렇게 “눌러도 넘어지지 않는 벼이삭” 은 필경 다른 시대의 거짓말이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중공은 거짓을 꾸미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1999 년 7 월 20일부터 파룬궁 박해를 시작한 후 중공의 거짓말은 또 하나의 고봉에 이르렀다. 1999 년의 그 여름 중공은 모든 신문,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을 움직여 돌림식으로 여러가지 파룬궁을 모함하고 욕하는 거짓말을 펴뜨렸는데 마치 “대약진” 과 “문화대혁명” 을 재현하는 것 같았다. 2001년 1 월 23 일, 중공은 또 천안문에서 한차례 분신자살 비참한 안건을 조작했다. 그후 중앙 텔레비전 방송국은 파룬궁에게 들씌워 모함하는 방송으로 대류 민중들이 파룬궁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면서 파룬궁에 대한 박해에 구실을 만들었다.



“분신자살자” 가 불을 붙혀 분신자살 후, 두 다리 사이에 휘발유가 담긴 푸른색 쉐비(雪碧) 병은 전혀 손상되지 않았다.

하지만, 인생은 마치 한차례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여행과 같이 풍경을 실컷 보면서 해빛을 누리지만 비바람도 겪는다. 반평생의 분투를 겪어 온 매우 많은 사람들은 로년에 왕왕 병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생이 그럴듯 했더라도 로년이면 여전히 서산에 지는 해와 같은 희망 없는 인생의 슬픔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행운스러운 로인이 있다. 로년에 입도(入道)하고 법을 얻었다. 파룬따파를 수련한 후 신체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락관적인 심태로 자녀들에게 가쁜 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어 가정의 진정한 “하나의 복” 으로 되였다!

(明后이기자 쑤룽, 쑈바이 대만 대남 취재보도) 유징산(尤景山)은 금년에 이미 84 세 고령이며 부부는 가나 오나 거의 함께 다니면서 매우 금슬이 좋았다. 그들은 4년 전, 80 세 때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했다.

젊었을 때 부부 두 사람은 생활을 위하여 필사적으로 일했다. 마차로 화물운송을 했고, 후에는 트럭을 몰았고, 또 벽돌 공장을 꾸렸고, 건축회사를 꾸렸었다. 한평생 생활을 위해 필사적으로 분투하여 재부가 있게 되자 도리여 건강이 손상받았다. 유징산 로인의 병은 하니뿐이 아니고 고혈압, 심장병, 뼈가 시큰시큰 아픈 등등 아주 많았다. 후에 비록 양생(养生)을 매우 중요시하면서 건강 체조도 하고 등 안마를 했지만 전신의 뼈는 여전히 어디나 시큰시큰 아팠다. 겨울이 오면 바로 감기에 걸려 기침하고, 코 막히고, 코물이 흐르고 몇 달 되여도 낫지 않았다. 그는 병원 이비후과의 단골 손님이였다. 유할머니는 젊었을 때 병이 많았다. 허리가 시큰거리고 등이 아파 오랜 시간을 서 있지 못했고 신체는 갈수 록 마른 나무처럼 여위여 바람만 불면 날려 갈 것만 같았다. 재부는 얻었지만 건강을 잃게 된 내심의 고통은 언어로 표달할 수 없었고 70~80세가 되니 얼마 남지 않는 여생을 더욱 어쩔 수 없었다. 비록 속담에 가정에 로인이 있는 것은 하나의 복이라고 하지만 신체 고통으로 유징산 늙은 량주의 마음은 암담해졌고 자식들은 어찌할 수 없이 애타게 걱정하게 되였다.

행운스럽게도 로인의 사위는 파룬궁을 수련하고 있었고 사위는 적극적으로 두 로인더러 수련의 즐거움을 시험해 보라고 했다. 그는 진심으로 간곡히 권고했다 : “당신 두분께서 날마다 병원에



84 세 고령인 유징산 부부

다니면서 이 공법이 이렇게 좋은데 어찌하여 파룬궁을 수련하려 하지 않나요?” 유징산 부부는 생각했다: “사위의 말은 매우 옳아요. 이 몇년간 종래로 사위가 의사 보이려 가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자주 병원으로 다니면서 왜 파룬궁을 수련해보려 하지 않나요?”

부부 두 사람은 집 근처의 동녕(東寧) 련공점에 가서 파룬궁을 배웠고 몇일 안되어 유징산은 신체가 개선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걸음이 매우 가벼워 마치 날 것만 같았고 매우 가쁜했다. 과거 그는 심장병과 고혈압으로 달릴 수 없었으며 달으면 심장이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련공을 한동안 하고나서 달아도 별문제가 없었고 더는 숨차지 않고 공원을 한 바퀴 달아도 의외로 아무렇지도 않아 그는 내심으로 이 공법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련공을 견지하려고 마음 먹었다.

파룬궁을 수련하여 4년간 유징산은 더는 병원으로 병 보이려 갈 필요 없었다. 한번은 병원으로 의사뵈러 가서 의사에게 그는 파룬궁을 수련하고 있으며 이 4년간 병 보이려 오지 않았다고 말했더니 의사は는 “정말 좋습니다. 나는 파룬궁이 아주 좋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도 환자에게 파룬궁을 권마하라고 소개하겠습니다.” 고 말했다.

수련후, 유할머니의 신체 역시 큰 변화를 가져왔다. 더욱 기묘한 것은 그녀의 개성마저 변했다. 수련하기 전 할머니 성격은 매우 나빴다. 일생을 필사적으로 부지런히 일하고 아껴써 왔지만 도리여 온 몸엔 병통만 남았다. 수련 후 세간의 모든 일은 죄다 인연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음을 놓자 무병으로 몸이 가벼워졌다. 현재 그녀는 신체 건강하고 마음이 유쾌하여 남편과 더욱 사랑하게 되고 자녀들은 효도하고 있다. 아웃들은 모두 매우 부러워 하며 말하기를 “당신들은 정말 좋은 운명입니다!” 유징산 늙은 량주는 이것은 파룬궁을 수련하여 가져다 준 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유징산 부부는 정년퇴직 후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산수풍경을 감상하여 많은 나라에 모두 그들의 발자취를 남겼다. 후에 몸 상태가 갈수록 좋지 않자 그들은 더는 출국 놀이 넘두도 내지 못했다. 불행한 일이 생겨 고국으로 돌아 오지 못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다. 하지만 파룬궁을 수련한 후 신체는 좋게 변하고 지팡이도 필요없게 되여 현재 그들은 늘 출국하여 파룬따파에서 소집한 심득 교류회의에 참가하고 있다. 또 적극적으로 각계에서 파룬궁을 요청하는 경축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4~5시간 시위행진 대오를

했어요!” “인재입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니 배양할 수 있습니다.”

중국사람은 중공의 당, 단, 대조직에 가입할 때 모두 맹세를 했었다: 중공(중공은 중국이 아니다)을 위해 종신 분투하며 수시로 당을 위해 생명을 포함한 일체를 희생할 준비를 하고 있다. 누가 이 말을 책임질 수 있는가? 누가 진심으로 이 말에 믿음이 있는가? 중공 몇십년의 폭력 정권이 중화민족에 가져다 준 재난을 보면 누구도 더는 공산당의 총알받이로, 순장품으로, 희생품으로 되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독 맹세를 하였기에 도덕을 말하지 않는 말에 신용이 없는 사람으로 되었다. 지금 매우 많은 사람은 모두 성명을 발표하여 중공 당단대에 가입할 때 자신이 한 맹세를 거두어 들이고 있다. 즉 “3퇴” (탈당, 탈단, 탈대) 성명이다. “3퇴”는 정치와 관계없는 도덕문제이고 량심의 선택이다.

揭穿谎言

▶ 거짓말 폭로

눌러도 넘어지지 않는 벼와 타지 않는 음료 병

중공 매체가 가장 능숙한 것은 거짓을 꾸미는 것이다. 백성들은 놀리며 말하기를 인민일보는 날자가 진실한 것을 제외하고 기타는 모두 거짓일 것이다. 중공이 거짓을 꾸미는데는 매우 오랜 역사가 있으며 널리 알려져 있는 “무당만근”은 바로 그 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1958년 여름가을에 즈음하여 중공 매체는 제멋대로 각지 량식 무당 산량은 위성을 초과했다는 거짓말을 선전했다. 1958년 6월 8일, 인민일보는 하남성(河南省) 수평현(遂平县) 위성농업사(卫星农业社)는 5 무 밀 밭에서 무당 평균 2105 근을 생산했다고 보도했다. 6월 16일, 중공의 신화사는: 호북성(湖北省) 곡성현



아이들이 위에 앉거나 서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중공 매체의 말로하면 “마치 연한 소파에 앉아 있는 것 같다”.

복목의론2: “국내 백성들은 공산당은 너무 사악하다고 모두 욕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자신을 당원이라고 말하면 모두 얼굴이 뜨거워난다고 합니다!”

“나는 앞길이 무한히 찬란한 청년인데 왜 그런 쓰레기와 한패가 되겠나요? ! 나는 탈출할 것이며 그것과 절단하고 도덕 량심에 손색없는 자신의 청백한 신분으로 되돌아 갈 것입니다!”

“나를 당원이라 하는 것은 당신이 사람을 욕하는 것입니다. 나는 신용을 지키는 중국 사람입니다 ! ”

골목의론3 : 당년에 기편당해 당을 위해 생명을 바치고 종신 분투하겠다고 한 것을 할 수 있나요? 이 말을 책임질 수 있나요? 사람이 되려면 신용이 있어야 합니다.

골목의론4 : “3퇴는 좋아요, 신용있는 내가 어찌 탈출하지 않겠어요 ! ”
“입당할 때 공산을 위해 종신 분투하겠다고 말한 독 맹세, 이런 맹세를 나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언녕 탈출했으며 만일 정말 응보가 있다면 나는 이미 탈출했기에 량심에 손색이 없으며 그속에 없습니다.”

골목의론5 : “소선대에 가입했었나요? 독맹세에서 탈출했나요? ” “탈출



3 퇴는 도덕 문제

따라도 어렵지 않아 두 사람은 모두 파룬궁의 아름다움을 깊이 느끼고 있다.

며느리와 아들은 부모가 파룬궁을 수련하고 화목하고 즐겁게 지내고 신체 건강한 것을 보고 잇따라 수련에 들어 섰으며 온 가족 어른이던 아이던 모두 파룬궁을 수련하고 있다. ◇

▶ 세계풍채

世界采风

파룬따파 세계에 널리 전해지다

파룬궁은 또 파룬따파라 하며, 1992년 5월 중국에서 전해 온 불가상승의 수련 대법이고, “천, 쌍, 런(真、善、忍)”을 근본지도로 하며, 5조의 느슨하고 아름다운 공법 동작을 포함하고 있다.

● **사람더러 선을 향하도록 가르친다** 파룬궁은 신체 건강에 매우 유효한 공법의 하나이자 또한 하나의 숭고한 신앙이다. “천, 쌍, 런(真、善、忍)”에 대한 신앙은 사람을 성실, 선량, 관용, 평화롭게 변화시킨다. 파룬궁은 돈 한푼도 받지 않고 의무로 공을 가르친다. 배우는 자는 자유로 오고 가며 서명첩에 기록하지 않는다.

● **사람을 건강하게 한다** 파룬궁은 병을 치료하고 신체를 건강히 하는 기이한 효과가 있다. 1998년 국가체육 총국은 북경, 무한, 대련 및 광동에서 5번을 거쳐 3.5만명을 조사하였다. 조사에서: 파룬궁 수련이 병을 제거하고 신체를 건강히 하는 총 유효률은 높기로 98%로 나타났다.

● **사회에 유익하다** 파룬궁은 수련자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부터 시작하여 도덕 수평을 제고할 것을 요구한다. 1998년 하반년, 부분 인대 정년 퇴직 로간부들이 몇 달간 파룬궁에 대한 조사에서 “파룬궁은 나라와 인민에게 백가지 리로울 뿐 한가지 해로운 점도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년말에 정치국에 조사보고를 바쳤다.

● **세계에 널리 전해지다** 파룬궁은 오늘까지 이미 세계 100여개 나라와 지역에 널리 전해지고 파룬궁의 서적은 40여가지 언어로 번역되어 출판 발행 되었으며 아울러 인터넷 사이트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리훙즈 선생과 파룬따파는 여러 나라 정부의 표창, 지지의안, 지지편지 3000여개를 수여 받았다. “천, 쌍, 런(真、善、忍)” 신앙은 세계 여러 민족 민중의 애대와 존경을 받고 있으며 중국대륙에서만 잔혹한 박해를 받고 있다.

파룬따파일 ——세계 함께 경축하는 날

1992년 5월 13일, 파룬따파는 장춘에서부터 전해 나왔다. 심신의 수익을 얻은 사람들은 이 특수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의 5월 13일을 “세계파룬따파일”로 정했다. 오늘까지 “파룬따파일”은 이미 세계 각 민족 파룬따파 수련생 및 민중이 함께 경축하는 명절로 되었다. 해마다 5월이면 수천수만 축하카드가 세계 각지에서 맹후이왕에 날아 왔으며 100여개 나라의 파룬궁 수련생은 자발적으로 성대한 경축활동을 거행하고 리훙즈 선생에 대한 숭고한 경의와 은혜에 대한 감사 또한 파룬따파 수련 후 새로운 삶을 얻은 희열을 표달했다. 여러 나라 정부 요원들은 분분히 리훙즈 선생과 파룬따파가 세계에 대한 공헌에 표창을 하였다.



장춘으로부터 전 세계 백여개 나라와 지역에 전하고 있다.

더욱 많은 세상사람들이 이 천상의 거대한 변화가 있는 긴요한 시각에 대법진상을 료해하고 파룬따파는 좋다를 기억하고 사악과 멀리하여 하루 빨리 중공사당 당, 단, 대에서의 탈출을 성명하기 바란다. 선량한 사람들이 모두 파룬따파 이 대법선에 올라 구도되기를 바란다.◇

▶ 골목의론

街谈巷议

나는 신용을 지키는 중국 사람이다

골목의론1: “생각 밖에 미국에 와서 둑색카드를 신청하자 뜻밖에 거절당한 리유는 자신이 중공당원이였었기 때문이다.”

“공산당 (단, 대) 을 위해 희생하고 종신 분투하겠다? ! 나는 이 말을 책임질 수 없다”

“사람이 되려면 신용이 있어야 한다. 듣자하니 애명 가명으로도 3퇴(탈당, 탈단, 탈대) 할 수 있다 하니 그렇다면 나는 무엇때문에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가 !”



담하는 도중에 갑자기 땅 바닥에 쓰러져 죽으며 그때의 정경은 아주 처참하고 아주 두렵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한번은 할아버지가 제자들을 거느리고 가부좌를 하고 있는데 천안(天眼)이 열린 한 제자가 장춘의 상공에 하나의 커다란 금선(金船)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때로는 숨겨지고 때로는 나타나고 금빛찬란하였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기뻐서 노래하고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 정경은 매우 장관이였다.....할아버지는 감탄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하나의 대복선(大福船)이다! 이 대복선에 올라간 사람들은 바로 대접난을 피할 수 있고 재난을 멀리할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아주 좋은 선량한 사람이야 만이 비로서 이 대복선을 탈 수 있다.

할아버지가 돌아 가실 때는 81세였다. 돌아가기 몇일 전에 어머니에게 그가 세상을 떠난다고 알려주었다. 떠나가던 그날 정신이 아주 안정하시고 상서로웠으며 얼굴에는 홍조가 띠고 있었는데 마치 주무시는 듯 하였다. 림종 전에 그는 가족들에게 : “나는 그날을 기다릴 것 같지 못하다. 하지만 장래에 너희들은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말씀하시기를 “장춘은 보배 땅이니 절때로 이곳을 떠나서는 안된다.” 고 분부하셨다.

시간은 어느새 몇십년이 지났다. 1992년 5월 장춘에서 리훙지 사부님께서 최고의 불가고덕대법(佛家高德大法)——파룬따파를 전했으며 대법은 그의 병을 제거하고 신체를 건강히 하는 현저한 효과로 통속하고 알기 쉽고 또한 박대정심한 법리로 신속히 억에 달하는 사람들을 대법수련에 흡인하였다. 대법수련은 명예를 추구하지 않고 리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찐, 쌈, 런(真、善、忍)”의 법리로 자신을 단속하기에 남녀로소를 막론하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서 있는지를 막론하고 대법에 따라 수련하면 모두 심신의 익을 얻게 된다.

1995년 나와 어머니 및 가족의 일부 친인들은 분분히 행운스럽게 파룬따파를 얻었으며 할아버지가 가족들에게 남긴 수수께끼를 풀었다. 우리는 할아버지가 이야기한 그 대복선은 바로 당전에 세인들이 파룬따파의 진상을 명백히 알면 이 대법선에 오른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다. 이 법선은 이미 출항하여



세계 각지에서 온 문안과 감사

설 맞이 명절은 중국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안부를 묻고 감사드리는 날이다. 매번 이 때가 되면 국제상에 하나의 독특한 풍경이 나타나고 있다 : 수만부 깊은 경의와 감사의 문안이 세계 각지로부터 맹후이왕에 보내 왔다.

세계 각지의 파룬궁 수련생과 진상을 명백히 알고 있는 세인들은 분분히 정밀한 축하카드, 시가, 악곡으로 파룬궁 창시인 리훙즈 선생에게 세배를 올리고 은혜에 중심으로 되는 감사를 표했다.





恭祝师尊新年快乐！



가야 하는가에 대해 물랐다. 후에 어머니는 조용히 나에게 알려주었다 : 너의 할아버지는 경상적으로 사람은 죽은 후에 가히 다른 세계로 갈 수 있는데 그 곳에는 신선, 선녀가 있으며 그 곳은 아주 아름답다고 하셨다. 하여 나는 늘 어머니한테 나의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 달라고 풀었다.

일본인들이 침략하여 만주국을 건립하기 전에 나의 할머니는 갑자기 “미친병”에 걸려 집은 근본 편안한 날이 없었다. 사처에서 의사를 청하고 약을 구했으나 도저히 치료되지 않았다. 후에 도술(道术)를 정통한 한 할머니의 손에서 병이 제거되어 기적처럼 나아졌다. 나의 할아버지는 이에 대하여 몹시 놀랍게 여기면서 바로 이 할머니를 따라 그녀의 도술을 배웠다. 이 할머니는 림종전에 “상사(上师)”의 동의를 거쳐 이 도문의 도술 비결을 나의 할아버지에게 전수했다. 이리하여 할아버지는 이 문의 마지막 장문인(掌門人)으로 되어 병을 치료하고 사람을 구하기 시작했으며 그리고 적지 않은 제자들을 받아들였다.

한번은 한 환자가 이미 희망이 없게 되자 가족들은 상복까지 입히고 사람을 시체판에 놓았다. 가족들은 한가닥의 희망을 품고 할아버지와 그의 제자들을 모셔다 병을 치료해 달라고 청했다. 이 사람의 수록(壽祿)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을 본 할아버지는 바로 구급치료를 하였는데 당시 이 사람은 바로 일어나 앉아 담배를 피우고 아울러 배고프다고 소리쳤다……할아버지 몸에서 발생한 이러한 신기한 사실들은 정말로 적지 않았다.

하지만 할아버지 이 도문에는 도리어 하나의 엄격한 규정이 있는데 바로 제자들을 모모 사당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나의 할아버지는 말씀하시기를 : “사당이 집정한 아래 천상은 변하고 인심이 변하고 모든 것이 죄다 변하며 인간세상은 바른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시기를 사당은 중화 5천년의 문명을 회멸하고 인류의 전통도덕을 회멸시키려 한다. 인심이 나쁘게 변한 이 후 인류는 한차례 큰 온역이 오는데 바로 “악한 것을 거두어 들어는 것인데(惡收) ” 누구도 다스릴 수 없으며 두 사람이 한



려가 큰 원목을 옮기였다. 한시간 남짓 힘을 들어서야 나무를 옮겨 치웠다. 가사실 안의 지씨 기사가 아직 살아있자 다들 비로서 조여있던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끌려 나온 지씨 기사가 팔다리를 움직여 보니 아무렇지도 않고 신체 표면마저 약간의 상처도 없이 단지 사람만 놀라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기사실을 다시 보니 놀리워 몽땅 납작해지고 주변의 유리는 죄다 가루가 되었지만 앞면의 바람 막는 유리는 도리여 그대로 있었다.

모두들 제가끔 말했다. 어떤 사람은 : “정말 신기합니다! 꼭 고인이 도와 주었습니다!”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 “큰 난에 죽지 않으면 꼭 복이 있을 것입니다”고 말했다. 여러 사람들의 의론을 들으면서 천천히 정신이 든 지씨 기사는 말했다 : “당신들의 말이 맞습니다. 나에겐 이것이 있습니다——” 모두 그가 손으로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 보니 바람 막는 유리의 한켠에 파룬파파 호신부 하나가 걸려 있었다.

평소 지씨 기사는 대법을 매우 인정하면서 늘 “파룬파파호우！”를 읽었다. 그는 : “이것은 대법 사부님께서 나를 구해 주었습니다！”고 말했다.

이 일은 차대를 매우 크게 뒤흔들어 놓았으며 다들 지씨 기사와 대법호신부를 요구했다. 지씨 기사는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법제자가 그의 아내에게 주면서 그의 아내더러 그의 차에 걸어 놓으라고 했고 또 : “경상적으로 ‘파룬파파호우, 쫸싼런호우(法轮大法好, 真善忍好)’를 읽으면 복을 받으며 재난에 상서롭게 됩니다.”고 알려주었다고 말했다.

이튿 날 그들 부부는 좋은 과일을 많이 사 가지고 대법제자 집에 와서 대법 사부님께 향을 올렸고 두 사람은 모두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지씨 기사는 : “대법 사부님께서 나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죽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겁이 납니다!”고 말했다.

이 일은 현성에서 매우 큰 영향을 일으켰으며 적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대법을 인정하면서 파룬궁 수련생이 한 말은 진실이라며 믿었다. ◇(문 / 대륙 대법제자 광위)

民间预言

▶ 민간예언

대복선——나의 할아버지가 하신 이야기

기억에 4~5살 때 나는 죽음을 아주 두려워했으며 사람이 죽은 후 어디로

▶ 과학견증

과학연구 일군 : 초상적인 과학을 견증

파룬파파가 세계에 널리 전해진 23년간 그의 간단명료한 법리와 병을 치료하고 신체를 건강히 하는 기이한 효과로 무수한 유식지사를 흡인했다. 그렇다면 파룬파파는 도대체 미신인가 아니면 초상적인 과학인가? 무엇때문에 전세계 억에 달하는 사람이 배우고 수련하고 있는가? 무엇때문에 여러가지 책을 많이 읽고 학식이 뛰여난 무수한 과학가들이 수련을 늦추지 않고 견지하고 있는가?

나는 과학기술 연구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어릴적부터 “무신론” 교육을 받았고 대학교를 졸업한 후 또 엄격한 “실증과학(实证科学)” 훈련을 받았다. 그러기 때문에 이 후의 몇십년 사업중에서 줄곧 이른바 제일 “과학” 적이고 “정확” 하다고 인정하는 길을 걸으면서 또 스스로는 철저한 “유물주의” 자라고 여겼다. 하지만 아내의 한차례 질병 시달림과 건강 회복 려정이 나에게 준 거대한 충격과 진동에서 나는 진정한 과학을 견증했다.

◆ 병마로 겪은 시달림

사실은 아내부터 이야기 하자. 우리 두 사람은 모두 과학기술 일군이며 한창 사업에 성취가 있는 인생의 쾌락을 향수하고 있을 때 평온하던 생활에 돌변이 나타났다——아내가 병에 걸렸는데 경추관이 심하게 비좁아 졌다는 진단을 받았다. 몇 년간 여러번 입원했고 7시간 더 되는 감압 대 수술도 겪었었다. 후유증으로 병세는 반복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갈수록 심해져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자 근육은 점차 위축되고 사지는 맥 없어 거의 “반신 불수”인 것 같았다.

이 기간에 나는 출근해야 하고 또 환자를 보살펴야 해 피로는 극에 달했고 하루도 멀리할 수 없기에 일부 중대한 학술회의마저 참석할 수 없었다.

◆ 간절한 희망으로 대법을 찾았다

바로 우리가 궁지에 빠져 있는 그때 방금 천진 파룬궁 학습반에 참가했던 한 동료가 우리에게 《파룬궁(法轮功)》 책과 리훙즈 사부님의 현장 강

의록음테프를 가져다 주었다. 그날 저녁 심야에 나는 목마르듯이 《파룬궁》 책을 한벌 삼가 읽었다. 참으로 너무 늦어 만난 것이 한스러웠다. 왜냐하면 나는 어릴적부터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등 여러 문제에 흥취가 있었기에 늘 유관 간행물을 열독했었다. 내가 탐구하는 문제를 거기에서 모두 똑똑히 말할 수 없었지만 《파룬궁》 이 책에서는 도리여 투철히 론술했고 보고 듣는 것은 다 새로워 나의 견식을 크게 넓혀 주어 이 공법은 매우 좋다고 느꼈다!

대법 사부님께서 인츰 대련에 오셔서 설법 학습반을 꾸린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몹시 참가하고 싶었다. 직장 동료는 우리에게 표를 사 주면서 그리고 나의 아내를 고무격려해 주었다 : “기적은 곧 당신의 몸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

◆ 사부님의 손을 꼭 잡았다

1994년 3월 27일 학습반 기일이 왔다. 나는 가죽 외투를 입고 긴 목 수건을 두른 아내를 큰 텔단자로 싸 업고 외국어 학원에 들어와 혜당 앞 케이 의자에 눕혀 놓고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기공협회의 책임자와 사업일군은 우리를 떠나라고 하면서 말했다 : “이 기공사의 에너기가 너무 크고 공력(功力)이 너무 세기에 환자에게 위협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당시 급해 난 나는 일체를 불문하고 강단위로 뛰여 올라 뒤켠에 가서 사부님을 찾아 정황을 설명했다. 나는 첫 눈에 자애로운 사부님을 보았는데 책에서 본 사진과 똑 같았다. 내심의 흥분을 억제할 수 없이 공공연히 사부님의 앞에 다가서서 물었다 : “당신은 기공사 리훙즈 선생님이십니까 ?” 사부님께서는 : “바로 나입니다” 고 대답했다. 이 때 나는 다가서서 사부님의 손을 꼭 잡고 아내의 상황을 간단히 소개하고 또 자신이 《파룬궁》에 대한 최초의 인식을 이야기했다. 사부님은 듣고서 미소를 지으면서 머리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 “이 학원은 오성이 조금 있습니다 ! 내가 가서 봅시다.”



전업이였다. 누구나 말했다 : 이 소년은 평시 각별히 좋은 편도 아닌데 그는 뜻밖에 시험성적이 이렇게 좋습니다. 아들은 말했다 : “시험장에서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나는 곧 바로 ‘파룬따파호우’를 읽었으며 읽기만 하면 안정되었고 나는 또 시험지에 적어 놓았으니 못칠 수 없습니다 !” 기실 이 모든 것은 그가 대법에 대한 지지와 갈라 놓을 수 없고 또한 사부님의 자비로운 보살핌을 떠날 수 없었다. 평시 내가 대법의 일을 한 것을 그는 모두 도왔고 기술상에서 더욱 많이 도와 주었다. 친척 친구들은 말했다 : 당신이 련공하니 얼마나 좋아요 남편, 딸, 아들 모두 당신따라 수익했습니다.

수련한 그날부터 나는 말했다 : 나는 대법속의 행운아이며 사부님께서 제자에게 주신 것은 인간 부모도 줄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 자비롭고 위대한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 ◇



바람막는 유리에 걸려 있는 대법 호신부

나의 집은 동북 모 현에 있으며 이 사실은 우리 당지에서 발생했다.

2014년 1월 2일, 지(紀)씨 운전기사는 10메터 되는 원목을 소형 트럭으로 현에 있는 목재구역으로 실어가려 했다. 지씨 기사 일행은 그의 앞켠에 3대, 뒤켠에 4대 도합 8 차량이 함께 출발했다.

마을 서쪽 3공리 처의 왼쪽 급전 굽이 돌이까지 왔을 때 도로면에 얼음이 한층 깔려 매우 미끄러운데 그의 차 속도도 조금 빨라 옹근 차는 2~3 메터 깊은 골짜기로 미끄러 내려 갔고 련결차에 실은 10 메터 원목이 앞으로 밀려 오면서 옹근 기사실은 밑에 깔려 있었다.

앞과 뒤 몇몇 차량의 기사는 즉시 차를 멈추고 급급히 지씨 기사의 차 사고 지점으로 갔는데 이 정경을 본 그들은 놀라 뭐라고 할지 몰라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 사람은 꼭 잘못 되였을 것이다.....모두가 다급히 골짜기에 내

이라고 말했어요.”

2010년, 시내의 한 저축소의 매인당 년수입은 겨우 2만원 좌우였기에 직원과 령도 사이는 마치 물불과 같아 누구도 일을 잘하지 않아 돈도 벌지 못했다. 행장은 남편을 찾아 말했다: 그래도 당신이 가서 나를 도와 수습하기 어려운 국면을 정리해 주세요. 가서 한달만에 전년 임무의 절반을 완성했고 직원 월 로임은 평균 8~9천원으로 년말에는 은행 선진 직장으로 평선받았다. 남편은 나와 말했다: “이것이 어찌 나의 능력인가요 모두 대법이 가져다 준 복분이며 나는 영원히 당신의 련공을 지지 하겠어요 !”

작년, 그는 또 다른 곳에 전근되었는데 임직 당일 모두가 말했다: “당신이 끝내 오셨어요. 듣자하니 당신은 복이 크기에 어디로 가나 좋은 운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우리도 당신의 덕을 봅시다.” 반년이 지난 후 그곳은 또 적자로부터 수입이 생겨 성적 로임을 발급할 때 직원들은 모두 말했다. 주임님, 당신이 돈을 얼마나 받아도 우리 모두 의견이 없습니다. 당신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것마저 탈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집에 돌아오면 나와 말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관리하기 힘들었어요. 그래도 마음속에 대법이 있고 당신들을 배워 때때로 자신이 먼저 잘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면 아마 정말 지탱하지 못했을 겁니다.

남편은 대법이 좋다는 것을 믿으면서 나의 수련을 지지했고 때로는 나를 도와 진상 전단지를 붙이고 진상 자료를 발급하여 그는 복 받아 그가 받은 로임은 전 은행 같은 급별에서 제일 높았다. 은행 사람들은 모두 말했다. 그가 어디로 가면 어디에서 돈을 벌기에 어데서도 다투어 그를 요구하기에 그를 “복성”이라고 했다. 그는 어느 곳에 가나 진상 인민페 (파룬궁 진상이 쓰여 있는 돈) 를 종래로 몰수하지 않았고 직원들이 이 일을 물으면 그는: “그것은 다른 글자도 아니기에 그것을 류통시키세요”라고 말했다. 그가 또 대법제자를 도와 바꾸어 준 새 돈은 매년 거의 몇 십만 된다. 새 돈이 적으면 그는 모아두었다.

◆ 아들, 딸 복 받았다

딸은 더욱 나의 수련을 지지했고 진상자료를 만드는 기술면의 일은 모두 그녀가 도와 주었다. 그녀는 2010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안되어 사람마다 부러워하는 일을 찾았고 로임 대우도 남성보다 더 높았다.

아들은 작년에 리상적인 대학에 붙었고 배우는 전업도 근년에 인기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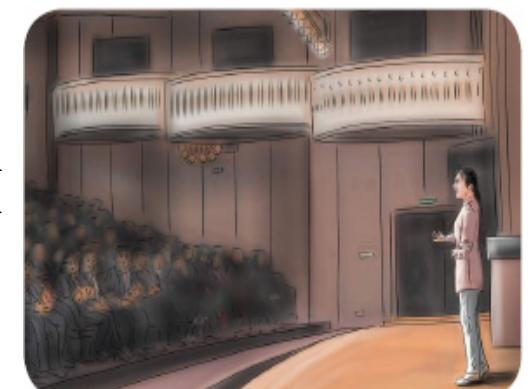
◆ 우리는 세계상의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되었다

생각지도 못하게 사부님의 “봅시다”가 뜻밖에 직접 나의 아내에게 신체를 청리해주셨다. 사부님은 나의 아내의 머리 및 뒤통수 몇 번 치고나서 또 두 어깨와 두 다리를 청리하셨다. 사부님의 손은 신체 양면 약 10센티미터에서 움직이더니 발 뒤 꼼지에 와서는 손을 모아 주먹을 쥐고 마치 무언을 손바닥에서 깊은 땅속에 힘껏 던지는 것이었다. 이 전반 과정은 전 후 불과 2분가량 이였다. 사부님께서는: “됐습니다! 당신이 걸어 보세요”라고 말씀하셨다. 아내가 무대 앞에서 두 바퀴를 걷자 사부님께서는 또 알려 주셨다: “병이 없습니다! 돌아 가서 앓아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아내는 앓아서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옆에 서 있던 나는 친 눈으로 사부님께서 손수 신체를 청리하는 전반 과정을 보았다. 온 레당에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신기하다! 정말 신기하다! ! 기적은 정말 나의 아내의 몸에서 나타났다.

첫 과당에 나는 아내를 업고 회장에 들어 갔지만 수업이 끝날 때 아내는 두 다리가 가벼워졌다며 뜻밖에 스스로 천천히 걸어서 레당을 나왔다. 집 문앞까지 돌아 온 후 내가 다시 그녀를 업고 계단을 오르려 할 때 그녀는: “나 스스로 걸어 보자요.”라고 말했다. 결국 그녀는 계단의 난간을 잡고 한걸음 한걸음 3층으로 올라갔다. 이것은 정말 기적이었다! 오래간 자리에 누워 일어서지 못했던 사람이 사부님의 2분 남짓한 청리를 겪고 사부님의 한과당 수업을 듣고서 뜻밖에 스스로 걸어서 3층 집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기적이다! 사부님께서 구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전수반이 결속지를 때 우리는 “파룬궁 공법은 과학의 보물”이라고 써여 있는 금기를 사부님께 드렸다.

이 후 아내의 건강 회복도 매우 빨랐다. 련공하고 설법록음을 들음에 따라 점차 두 다리에 힘이 생기고 한 달 후 남새 시장에 가서 남새를 살 수 있고 천천히 가무 일도 할 수 있게 되었다. 7월 초, 사



부님께서 두번째로 대련에서 전수반을 꾸릴 때 우리는 기타 수련생과 함께 공공뻐스를 타고 배행기 장으로 사부님을 영접하러 갔다. 이 기적같은 변화는 나를 깊이 진감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에서도 매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우리 지역도 매우 크게 뒤흔들어 놓아 매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파룬궁의 신기함을 알게 되였다! 분분히 다투어 공법을 배우려 했고 사부님께서 다시 우리 시에 오셔서 전수반을 꾸릴 것을 몹시 갈망했다. 첫 학습반은 랴 500 여명 수련생이 였고 사부님께서 7월에 두번째로 대련에서 전수반을 꾸릴 때엔 인수가 4000 여명으로 증가했고 그중 우리 직장은 가족을 포함하여 200 여명이 전수반에 참가했다. 사부님께서 12 월에 세번째로 대련에서 “파룬궁 보고회”를 하실 때 체육관의 6600 여명의 좌석에 사람들이 꽉 차 앉았고 중앙 대청 및 모든 인행로에도 빼곡빼곡했다. 정말 대법이 널리 전해지고 중생은 갈망하고 있었다! 사부님의 자비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되었다.

아내의 건강이 점차 회복되면서 나도 해탈되었다. 정상적으로 과학연구 사업에 참가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걱정없이 외출할 수 있거니와 여러가지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다. 심지어 또 고향의 모교에 가서 다년간 보지 못했던 동창모임에 참석할 수 있었다. 나는 몸소 겪은 사부님의 신기한 기적을 이야기했고 그들은 모두 감탄에 마지 못해 분분히 내심에서 우러나: “파룬궁은 정말 좋습니다!” 고 찬사했다. 나의 이런 동학중에 어떤 사람은 탁월한 성취가 있는 박식한 인사이고 또 어떤 사람은 모 첨단과학 영역의 전문가 권위였다. 나와 교류하는 중에 수시로 진심으로 감탄했다 : “파룬따파야말로 진정한 과학입니다！”… 그들은 : “당신이 몸소 겪은 것은 가장 진실한 견증입니다！” 고 말했다.

기쁜 것은 대법수련을 거쳐 나의 신체는 향호한 상태를 보존하게 되였다. “찐, 쌘, 런(真、善、忍)” 법리의 지도하에 대법은 나의 지혜를 증가해 주어 나의 머리는 더욱 령활하고 정력은 더욱 충



복이 나의 집에 왔다

나의 애명은 메이즈(梅子)이다. 과거 온 몸에 병이 가득하였는데 파룬따파를 수련한 후 사부님께서 나의 신체를 정화시켜 주어 한주일만에 나는 모든 약을 끊었고 살면서 처음 무병으로 온 몸이 가벼운 것을 체득했다. 이것을 본 남편은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다. 내가 정말 좋아진 것을 보고 채색 텔레비, 록상방영기를 사다 사부님의 설법 록상과 공을 가르쳐 주는 록상을 틀어 놓았다. 친척 친구 이웃들도 나의 변화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 “파룬궁을 련마하고 병이 다 나았고 싸우지도 않고 화를 내지 않는 메이즈를 보니 이 파룬궁은 정말 좋습니다” 고 말했다.

◆ 남편은 직장의 “복성”으로 되었다

나의 남편은 은행에서 사업하고 있어 전근이 빈번하다. 농촌에 있는 한 저축소의 여러 가지 업무 수치는 여태껏 모두 꿀지여서 직원들도 돈을 벌지 못해 누구나 가기 싫어했다. 그 해 전근에서 누구나 리유를 만들어 가려 하지 않았다. 남편이 집에 돌아와 나하고 상의하자 나는 : “누구도 가지 않으면 당신이 가세요 ‘파룬따파호오(法輪大法好)’를 기억하고 가는 곳마다에서 직원들을 위해 생각하면 그들은 업무를 잘 해낼 것이니 바로 효익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말했다.

다음 날 남편은 주동적으로 행장을 찾아 그가 가겠다고 하자 행장은 매우 기뻐하면서 말했다 : “당신은 나의 큰 고민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가기 싫어 하는 사람을 억지로 보내면 그 곳에 가서도 일을 잘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가서 본보기를 보여주세요”

임직한 후 그는 정말 아주 잘했다. 단 일년사이에 전 은행 업무 수치를 꿀지에서 일등으로 만들었다. 저축소의 모든 직원들은 기뻐하면서 말했다 :

“주임님, 당신은 우리의 대복성 (大福星)입니다. 우리는 여태껏 이렇게 많은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전근해 가지 마세요” 이 과정에서 그는 매번 돌아오면 나와 말했다 : “나는 비록 련공하지 않지만 당신한테서 대법이 좋다는 것을 체현하였어요. 나 역시 ‘찐, 쌘, 런(真、善、忍)’에 따라 하면서 직원이 그릇된 것을 보면 나는 모두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감화시켜 그들은 모두 령도가 모두 이렇게 관리한다면 그 누구나 모두 일을 잘할 것

이 문장을 읊겨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신문은 이미 인쇄하기 시작했는데 리밍은 도리여 어쩐지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졌다. 그는 대법을 수련하는 사람은 모두 좋은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진취안의 의견을 들어 보기로 했으나 당시 진취안은 바로 고향에 있었다. 하여 리밍은 몇십리 길을 차를 몰고 진취안을 찾으러 농촌으로 갔다. 진취안은 그에게 파룬궁은 무엇이며 파룬궁은 사람의 도덕을 승화시키고 신체를 건강하게 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는 이 문장은 파룬궁을 날조 모독하는 것이기에 발표하면 안된다고 알려주었다!

리밍은 돌아온 후 이미 인쇄되어 있는 만여분 신문을 작폐하고 내용을 바꾸어 다시 인쇄했다. 당시 정사시비(正邪是非) 앞에서 리밍은 자신에게 정확한 위치를 정해 놓았다!

2년 후, 다시 말하면 1999년 신문사에 승진이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신문사는 리익이 매우 큰 직장인 것을 알고 있기에 경쟁이 비교적 격렬했다. 어떤 사람은 위에 오르기 위해 그 직폐 신문으로 일을 벌리려 했다. 리밍은 이로 인해 순리롭게 승진하지 못하고 도리여 같은 급의 다른 직장에 전의되었다. 표면으로 볼 때 그의 관직에 마치 영향을 미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다!

오라지 않아 장쩌민 류망 집단은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전국의 신문 매체는 모두 미친 듯이 날뛰는 박해에 말려들어 모두 대법에 죄를 지었다! 하여 응보도 그림자처럼 잇따랐다. 리밍의 사장직을 넘겨 받은 사장은 얼마 못하고 바로 응보받아 그의 아내가 40몇 살에 암에 걸려 죽었다.

그를 이어 받은 다음 임직은 더욱 비참했다. 50살도 안 되는데 암중에 걸려 죽었다. 후에 신문사는 망했고 신문사 직원은 실업당했거나 다른 곳으로 옮겼거나 거의 모두 좋은 결말이 아니였다.

하지만 리밍은 빈번이 복 받았다. 몇 년 사이 부과장급 사업 직장의 주임으로부터 국장으로 승진했다. 그의 가정 역시 매우 행복했고 아이의 성적은 학교에서 줄곧 맨 앞자리를 차지했고 후에 미국으로 유학갔다.

진취안은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 기뻤다! 이것은 바로 그 말에 응했다: “대법을 선의로 대하면 하늘이 행복 평안을 내린다!” ◇



만되어 여러가지 과학연구 실험 수치 분석은 더 정밀하게 준화했고 모순을 더욱 정확하게 분석했다. 하여 내가 참가한 과학연구 과제는 화공, 생물, 의학 전업인원의 긴밀한 협작중에서 창조적으로 일종 신형의 생물의학 전자학 규모화 제비(制备) 계통을 연구제작하였는데 그 기술성능은 국내외 선진 수평의 선두에 섰다. 나는 시 “기술발명 1등상”을 받았다.

내가 파룬따파를 수련하여 20여년 간, 과학기술 일군으로서 실천속에서 몸소 대법은 정확하고 진정한 과학이고 설교와 유심이 아니고 미신은 더욱 아니라는 것을 견증했다. 나는 진심으로 파룬따파야말로 진정한 “초상적인 과학”임을 감수했다. ◇

▶ 백성 신변의 일

百姓身边事

시댁과의 악연을 선으로 해결



집집마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고부간의 문제라고 한다. 고부간의 관계는 본래부터 천고에 해결하기 어렵고 용합하기 어려운 난제라고 한다. 만일 게다가 야만적인 시아버지를 만났다면 그것이야 말로 설상가상이다. 그렇다면 이 빙설은 정말 녹일수 없단 말인가?

속담에: 좋은 아들은 좋으 며느리보다 못하다고 한다. 현명하고 효성스러운 며느리는 한개 대 가정을 평온하게 하는 기초돌이다. 현명하고 효성스러운 며느리는 자신의 남편과 아이에게 따뜻하고 화목한 분위기와 복분을 가져다주는 외 더 우기는 시부모 및 대 가정의 복이다.

시댁 가족들과의 악연

나의 시댁에는 시부모, 남편 3형제, 두 녀동생이 있으며 모두 이미 가정을 꾸렸고 각자 자녀 하나씩 있고 모두 성시에 거주하고 있어 해마다 설명절이면 17명이 한데 모여 매우 벅적거렸다. 남편은 둘째이고 나와 남편은 모두 비교적 성실하고 착한 편이며 학교에 다닐 때 중공이 발동한 문화대혁명의 박해로 대학에 가지 못했다. 1972년 초급중학교를 졸업하고 기초건설 대집체에 분배되어 일했다. 쌍방의 가정 경제가 모두 곤난하여 돈을 벌면

모두 부모에게 바치다 보니 1981년 결혼 할때는 빈 텔털이 였다. 결혼에 가구를 짜고 혼례에 치르는 돈을 시부모는 남편더러 동료한테 빌려쓰고 혼금을 받은 후 돌려 준다고 했다. 하지만 결혼 혼금을 받은 후 단지 혼금 명세만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더러 갚으라고 했다. 돈이 없다면서 돈을 주지 않더니 돈으로 막내 도련님에게 새 자전거를 사 주었던 것이다. 결혼 후 우리는 돈을 갚아야 하기에 시부모 집에 바치는 식비가 적어졌다. 성격이 조폭하고 고집이 센 시아버지는 늘 아무런 연고 없이 남편을 때리고 욕했고 신혼에 우리를 집에서 내 쫓아 하는 수 없이 기차역에서 하루 밤을 지새운 적이 있다. 결혼 후 나는 아들을 낳았고 동서 셋 중에 나만 남자 아이를 낳았지만 시부모는 도리여 불공평하게 취급하면서 기타 아들 딸을 편애했다.

특별히 시아버지는 늘 집에서나 밖에서 싸우고 사람을 욕하고 시비를 걸어 저지른 일을 나의 남편더러 사람을 찾아 돈으로 평정하게 했고 늘 가정에 시끄러움을 가져왔다. 남편은 늘 맞고 욕먹고 나 역시 따라서 욕먹고 불행을 당했다. 나는 비록 참으면서 말 없이 시부모와 맞서지 않았지만 원한과 억울함을 마음속에 품고 있어 마음이 열리지 않아 늘 번거롭고 갑갑하여 남편과 한풀이 했다. 결혼 후 일년 더 되여 우리는 처가에서 준 집으로 이사해왔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여전히 걱정되고 힘들고 돈을 쓰는 일이 있으면 모두 우리더러 부담하라고 했고 좋은 일은 우리 뜻이 없이 단지 줄곧 대가만 치러야 했다. 남편은 시아버지는 어릴적부터 그를 아니꼽게 보면서 늘 그를 때리고 욕했으나 남편은 도리여 매우 효도했고 원한도 매우 적었다고 말했다. 나는 수련 후 무릇 사연은 모두 아무연고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와 남편이 시댁하고 전세에 맺은 악연인 것을 알았다!

좋은 대법을 얻고 새삶을 얻었다

결혼 당시 나는 시댁의 광선이 없는 단지 8평방인 간단한 단층 집에 거주하고 있었다. 겨울이면 벽에 서리가 얼어 붙고 여름이면 축축하여 이불에 검은 곰팡이가 생겼다. 아이를 낳은 산욕기에 풍습병에 걸려 허리 다리, 등이 참을 수 없이 아팠고 심할 때엔 허리를 폐지 못해 걸을 수 없었다. 봄이 오면 바람맞아 머리와 얼굴에 생긴 붉은 종기가 견딜 수 없이 가려웠다. 또 장기적으로 이런 가정 환경에서 생활하다 보니 온 종일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게다가 경제적 곤난으로 잘 먹지 못하고 잘 자지 못하여 뇌혈관 신경성 편두통, 신경 쇠약증, 비두염, 편도염, 위장염, 유선소엽증생, 부과병

2000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을 때 현 “610”, 공안국에서 비밀리에 100여명 대법제자를 붙잡은 것을 알고 그는 아래 사람을 훈계하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많은 사람을 붙잡았습니까? 그들은 모두 우리 현의 좋은 사람입니다!” 고 말함과 아울러 즉시로 집에 돌아가 설을 쇠도록 사람을 석방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아래 몇몇 진상을 모르고 중공에게 미움을 살가봐 두려운 사람이: “만일 위에서 뭐라고 하면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고 묻자 이 부현장은 떳떳하게 말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또 한번은 현 “610”과 공안국의 사악한 자들은 공을 세우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또 파룬궁을 수련하는 한 교사를 붙잡았다. 그녀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기에 사당 악도는 그녀를 한 편벽한 곳으로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녀 집의 두 아이는 학교에 다니고 남편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만일 그녀가 없다면 이 가정은 흩어질 것이다! 이 부현장은 이 녀교사는 사업에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법제자라는 것을 알고 “610”的 수법을 견결히 동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는 또 한명의 대법제자를 보호했다.

바로 이 부현장의 한번 또 한번의 선행으로 그와 가족은 모두 잇따라 복 받았다: 그 자신은 부현장에서부터 그 성시 모 부문의 국장이 되고 그의 아들은 어린 나이에 소년 대학생이 되고 얼마전에 또 연구생에 붙었다.

진상을 명백히 알고 대법을 선의로 대하면 결국은 복보를 얻게 된다! ◇

정의로 파룬따파를 지지하고 신문사 사장 온 가족 복 받았다

이전에 모현 신문사의 사장이었던 리밍(黎明)은 파룬궁 수련생 준취안(俊全)과 허물없는 친구였다. 1997년, 《광명일보》에서 대법을 공격하는 문장을 발표하자 전국 매우 많은 매체에서 분분히 옮겨 발표했고 그들 신문도



다. 량심을 어기고 좋은 사람을 박해하였으니 보응을 받지 않을 수 있는가? 파룬궁 박해에 제일 앞장섰던 왕리쥔, 보시라이, 장쩌민의 유력한 조수 저우융캉, 리둥성, 쉬차이허우 모두가——“황조얼”을 당하지 않았는가? ! 얼마 안되어 박해 원흉 쟁칭훙, 장쩌민도 청산에 직면할 것이다. 사람이 다스리지 않으면 하늘이 다스린다고 단지 두려워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 “쩐, 쌍, 런(真、善、忍)”을 수련하는 사람을 선의로 대하지 않는가? 대법을 선의로 대하는 것은 자신에게 뒤길을 남기는 것이며 이렇게 하면 어디에 부딪칠 일도 없이 복이 따를 것이다. ◇



▶ 선념복보

善念福報

대법제자를 보호하고 현장 온 가족 복 받았다

이 부현장이 여전히 임직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여기에 진실한 이름을 쓰지 않겠다. 1999년 7월 20일 이 후, 중공 류망집단은 그더러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현 “610”의 일을 모두 관할하라고 했다. 그는 《전법륜(转法轮)》 등 대법 서적을 본 적이 있기에 파룬따파가 좋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었다. 때문에 위의 명령에 대하여 한글로 듣고 한글로 내 보내면서 일로 삼지 않았다.

등 10 몇 가지 완고성 질병에 걸렸다. 더우기 편두통은 거의 매일마다 아스피린 등 약으로 심한 통증을 감소해야 했고 아프다보니 늘 마음이 번고롭고 정신이 산란해 삶은 불안정했다. 참기 어렵게 아플 때엔 벽에 충돌했고 때로는 아픈나머지 신경 혼란으로 울고 웃기도 하여 여러모로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이 없었다. 비두염은 나로 하여금 하루 종일 코가 막혀 숨을 쉬지 못해 잠을 자도 입을 벌리고 숨을 쉬여 목은 말라 아프고 일년내내 구강 괴양이 생겼다. 감기는 일상적인 일이며 몇 일 되는 고열로 편도체는 늘 염증이 생겨 붓고 아프다보니 밥을 먹을 수 없었다. 나는 하루 종일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정말로 사는 것이 죽기보다 못했다.

1998년 5월 초, 모친이 권고하에 나는 파룬따파 수련에 들어섰다. 그 때 모친은 수련한지 이미 일년이 넘었고 수련전의 심한 심장병, 고혈압, 동맥경화, 기침등 여러 가지 질병은 파룬따파를 수련하고 죄다 아주 빨리 회복되었다. 나는 모친의 몸에서 발생한 기적과 대법의 초상적인 아름다움을 보았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련공점에 가서 아침 련공에 참가하고 낮에는 다그쳐 《전법륜》을 공부하였는데 마음은 비할데 없이 즐거웠다. 일상 생활에서 “쩐, 쌍, 런(真、善、忍)”의 표준으로 자신을 엄격히 요구하면서 일에 부딪치면 안으로 찾아 세계관은 매우 큰 전변을 가져왔다. 명리도 담담히 보고 무병으로 몸이 가벼워지고 심신이 크게 수익하여 비할데 없는 아름다운 행복을 느꼈다.

선으로 시댁과의 악연을 풀었다

수련 후 심성이 제고됨에 따라 나와 시댁 가족의 관계는 부단히 개선되었다. 모순에 부딪치면 안으로 찾고 관용하고 너그럽게 양보하면서 가족을 선의로 대하였다. 리익에서도 나는 다투지 않고 아울러 마음껏 시부모를 공경했다. 우리 동서 3 사람, 두 시누이 및 가족사이가 화목하자 시어머니는 늘 내가 좋게 변했고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고 칭찬했다. 나는 늘 그들에게 진상을 말해주고 대법의 아름다움을 말해 주면서 진상 자료, CD, 호신부 등을 주어 그들은 모두 진상을 명백히 알았을 뿐더러 “3퇴” (탈당, 탈단, 탈대)를 했다. 나의 아들 며느리도 “3퇴” 하고 아울러 내가 대법을 수련하는 것을 지지했다. 맏 동서와 막내 동서는 또 자신의 친정 식구들을 도와 “3퇴”하고 평안을 보장하여 모두 복을 받았다. 맏 동서의 사위는 또 내가 지어준 탈당 가명을 미박 (微博)이름으로 정했으며 30 몇 살에 부처장 급에 승진했

다. 만 동서는 이미 《전법륜(转法轮)》을 보았고 또한 수련하려 한다.

85 세인 시어머니는 1998년에 심한 감기에 걸려 몇 일간 고열이 내리지 않았다. 나는 나의 집에 모셨다 그에게 《전법륜》을 한 번 읽어 주었더니 시어머니는 매우 즐겨 들었으며 병도 매우 빨리 나았고 다년간의 로년병마저 나았다. 지금 시어머니는 경상적으로 성심으로 “파룬따파호우, 쩐싼런호우(法輪大法好、真善忍好)”를 읽고 있다. 시아버지는 성격이 고집스럽고 두 랑주 모두 문화가 없으며 평생을 다투며 지냈다. 지금 시아버지가 화를 내면 시어머니는 “舛, 쌍, 런(真、善、忍)”을 읽으면서 참고 너그럽게 관용하면서 시아버지와 싸우지도 않는다.

나의 시부모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은 40여 평방인데 원래의 단층 집을 옮기면서 가진 것이다. 그중 10 평방은 나의 남편이 낡은 창고를 수리하고 사람을 찾아 남편의 이름으로 집조를 수속했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하고 살고 있던 집은 막내 도련님에게 양보했고 막내 도련님은 집을 옮기면서 그는 30여평 되는 집을 얻었다. 시어머니는 여러 번을 시부모가 현재 들어 있는 집은 후에 우리와 아주버님 두 집에 나누어 주고 두 시누이는 주지 않고 그녀 두 사람은 부양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부양비, 로인 의료비, 큰 일작은 일에 쓰는 비용은 모두 3형제가 책임지기로 했다. 나와 두 시누이는 줄곧 서로 화목하게 지내왔고 종래로 다투적이 없었다. 하지만 금전을 매우 중히 여기는 그녀들이 집 분배에 대한 불평으로 배후에 시부모와 이것저것 시비충돌은 피면할 수 없었다. 나는 파룬따파를 수련하고 일을 함에 있어 곳곳마다 남을 생각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두 시누이를 나무람하지 않고 그녀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이미 부동산 계승권을 포기했으니 당신들 누가 가져도 된다고 표명했다. 그녀 두사람은 매우 기뻐했고 또한 나의 무사한 넓은 마음에 탄복했다.

남편은 속인이기에 포기하려 하지 않았지만 나의 권고하에 크게 따지려



는 그녀집의 치상위원회로 되였답니다. 이 한수에 위풍이 꺼어지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큰 아들이 또 다른 사람을 부딪쳐 죽였는데 죽은 사람의 가족들은 상복을 입고 그녀의 집에서 제를 지내려 하자 겁에 질린 그녀는 아들을 간수소에 감추고 공안을 데려다 그녀를 위하여 보초를 세웠습니다. 어느 한번 쿵판잉은 또 파룬궁을 괴롭히는 회의를 소집하고 방금 회의가 끝나자 어찌 된 일인지 그녀는 넘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이렇게 “한 번에 3가지를 당하고” 쿵판잉은 풀이 죽었답니다.

정법위원회 서기 쉬란링(许兰岭)은 관현에서 몇 년간 파룬궁을 괴롭히 (박해하) 였으며 방금 조동하여 부현장으로 승진하자 제남에서 대학교에 다니는 그의 아들이 사람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정법위원회 부서기 류화이천(刘海川)은 파룬궁을 괴롭힐 때는 그래도 관리 노릇을 실컷 했지만 그는 신병(腎病)에 걸려 신장 하나를 적출하였습니다. 공안국장 허페(赫沛)는 매우 독하게 파룬궁을 괴롭히더니 결국 목구멍에 암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나는 파룬궁을 련마하는 사람들이 자료를 발급하는 것에 대하여 역시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 몇사람이 당한 큰 재앙을 보고 나는 명백히 알았습니다. 파룬궁은 당신이 악보받지 않게 하기 위한 선행이며 방금 말한 이 몇가지 사실은 바로 남들이 말하는 “한줄기 쟁조얼 선”이며 어떤 사람은 “전선 쟁조얼(全线撞招)”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610” (전문 파룬궁을 박해하는 불법기구) 주임 런광민(任广民) 마저 겁에 질려 “쟁조얼” 이 두려워 짐을 부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동창생 을: 듣자하니 하북에 허쉐잔(何雪健)이라고 부르는 공안이 파룬궁녀 수련생을 강간하여 그는 음경암에 걸렸답니다.

모주임 갑: 한번은 몇 사람이 한담을 하면서 아래 기층 단위 두목들을 훑어 보았는데 결국 무릇 파룬궁을 괴롭히면서 즐겨 자기를 내세우던 사람 중 현재 조용히 살고 있는 사람이 몇이 없었습니다. 성관진(城关镇)의 두번째 책임자 왕보좡(王保壯)은 신지(辛集)향에서 과출소 소장직을 맡고 있을 때 파룬궁 사람들의 재물을 몰수하고 또 사람을 붙잡고 또 벌금하여 결국 2살이 좀 더 되는 그의 아들은 집에서 전동차에 깔려 죽었습니다. 듣자하니 공안의 이 일을 하는 몇몇 사람도 겁나 하는데 “쟁조얼” 이 두려워서입니다.

원래 이 “쟁조얼” 이란, 대법을 박해한 사람들의 악보를 말하는 것이였

다동중이 있는 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련공을 통해 그는 조용하고 머리가 맑고 깨끗해 주의력을 집중할 수 있었어요.” 고 말했다.◇

▶ 천상인간

天象人间

현위관리가 두려워 하는 “황조얼”

한 우연한 기회에 모 주임 갑과 옛 동창생 을이 한담하는 말을 들었다. 주임은 한개 각별히 새로운 단어를 말했다——“황조얼(撞招儿)”. 도대체 “황조얼”이란 무엇인가?

주임 갑: 이봐요, 들어 보았나요? 지금의 대청[산동관현(冠县) 현위기관]의 사람들은 모두 파룬궁을 괴롭히는 (박해하는) 일을 시키는 것이 두렵다고 하면서 “황조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새해 전에 현에서는 파룬궁을 괴롭히는 회의를 열었는데 대청의 사람들은 “황조얼”의 한갈래 선이 또 생각났습니다.

현장 류밍싱(劉明星)은 관현에서 앞서서 파룬궁을 괴롭히더니 그는 간암에 걸려 간을 두번 바꾸고 5백여만원을 썼으며 돈도 팔고 고생도 하고 생명도 잃었어요. 대청의 사람들은 이것을 “황조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현위 부서기 쿵판잉(孔繁英)은 전문 파룬궁을 괴롭혔는데 처음엔 그녀의 기세도 대단했습니다. 한번은 그녀가 먼저 날 회의를 열어 파룬궁의 서적을 압수하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그녀의 둘째 아들이 모터찌를 타고 출근하다 차에 부딪쳐 죽어 파룬궁을 수색하지 못하고 수사대



보시라이무기도형



저우융캉 “가문멸망”

하지 않았다. 하지만 본래 나의 남편을 마음에 들지 않던 시아버지지는 더욱 별일 없어도 꼬투리를 잡고 일을 벌리면서 설명절 온 가족이 한데 모일 때면 어찌된 영문도 모르는 소란을 피워 가정은 조용하지 못했다. 나의 남편은 이미 60에 가까운 사람인데도 시아버지지는 여전히 때리고 욕했다. 나의 남편이 때로는 불복하여 몇 마디 맞서면 그는 더욱 화를 냈다. 몇번은 모두 내가 좋은 말로 시아버지에게 신체건강을 위해 화를 내지 말라고 권고하면서 모두 우리의 잘못이라고 했어도 도리여 시아버지의 무리한 욕을 먹었다. 나는 여전히 평화롭게 말했다: 당신이 나를 욕해도 나는 화를 내지 않으니 당신께서 화를 내지 않으면 됩니다. 평소에 나는 법 공부를 많이 하고 법을 외웠기에 상서롭고 평온한 심태를 보존할 수 있었고 일에 부딪치면 완화시킬 여지가 있고 안으로 찾을 수 있고 자신이 어디에 잘못했으면 법의 표준으로 자신을 요구하면서 모순을 선의로 해결할 수 있었다.

작년 봄의 한차례 모순은 더욱 격렬했다. 그것은 나의 시어머니가 허리통(만성병)을 앓고 있었는데 바로 나의 남편이 출장가려던 참이여 떠나기 전에 돌아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 보이러 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때 아주버님과 만 동서 부부는 모두 정년퇴직하고 집에서 휴식하고 있었고 만 동서는 또 의사였고 막내 도련님도 일하는 건축공정이 휴식으로 집에 있었다. 하지만 시아버지지는 기어코 나의 남편이 돌아와 시어머니를 데리고 병 보이러 가라고 했다. 남편이 돌아온 다음 날 우리는 시어머니 집에 가서 시어머니하고 래일 병 보이러 가자고 말해 놓았다. 하지만 밥을 먹을 때 시아버지지는 화를 내면서 나의 남편이 불효하다니 시어머니에게 병을 보이지 않고 또 집을 가지려 한다니 부양비도 적다니 등등을 넉두리했다. 술을 많이 마신 남편도 벌컥 성이 나서 자신이 많은 돈을 쓰고 힘을 들이면서 아무런 불평도 없이 일편 단심 효도하였다고 불복하여 시아버지와 맞섰다. 시아버지 는 또 남편을 욕하고 때렸고 아울러 맥주병을 휘두르면서 남편을 때렸다. 남편이 막으면서 시아버지를 두번 밀었더니 시



아버지는 미친듯이 폐농을 수 없는 정도로 싸웠다. 나와 시어머니 그리고 시형 부부 모두 말리지 못했고 시아버지는 여전히 가만있지 않고 펄펄 뛰면서 욕했다. 나는 힘껏 남편을 말렸다. 당신이 제자 규칙을 배우면서 로인에게 효도하려 하지 않았나요? 어서 빨리 로인에게 잘못을 빌어요. 그가 시아버지에게 절을 세 번 하고서야 시아버지의 화가 조금 사라졌다. 나도 련속 선의로 시아버지에게 화를 내면 신체 건강에 해가 온다고 권고했다: “아버님, 당신이 우리를 욕해도 나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정말 당신한테 좋지 않습니다. 그 무슨 요구가 있으면 잘 이야기 하십시오. 우리는 이 집도 가지려 하지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양비를 드리겠습니다. 로인에게 효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며 적다고 생각하면 당신께서 말씀하십시오. 비록 우리가 버는 돈은 적지만 될수록 당신을 만족시키려 하니 당신께서 이 후엔 때리고 욕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바랍니다. 나는 진심으로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나의 말을 듣자 시아버지는 즉시 조용해졌다.

평소 생활에서 나는 더 많이 시부모 가족을 위해 생각하고 더 많이 그들을 존중하고 선의로 대했다. 경제상에서 우리는 스스로 절약하면서 더 많이 시부모에게 부양비를 드렸다. 시어머니 병 보일 때 전면 검사에 쓴 1000여 원을 모두 우리 스스로 부담했고 시댁의 연기 배출기, 난로와 전기밥솥이 낡아 쓰기 불편하자 남편더러 새것을 사서 가져다 주게 했고 일상 생활 용품, 식품과 시아버지가 즐겨 마이는 차 역시 때때로 가져다 드렸다. 시어머니가 주는 돈도 받지 않았고 시댁에 가면 나 역시 더 많이 일했다. 시부모 및 가족 사람들은 나의 선심과 성의에 모두 감동받았다.

현재 가정환경에는 즐거운 변화가 일어났고 분위기는 상서롭



파룬궁 수련생 종이 공예 작품

다.

아내 爱蒂特는 : “胡伯特는 매우 많은 기공을련습했었지만 나는 그한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주의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파룬궁을 수련한 후 그는 변했어요. 이전에 도량이 너무 작은 그가 너그럽게 용서할 수 없기에 우리집은 마치 지옥같았어요. 뿐만아니라 그는 매우 우울하기에 우울한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였습니다. 나는 그가 수련함에 따라 이런 것들이 변화하고 있음을 발견했으며 그가 너그럽게 변하자 아이들마저 그의 너그러움과 넓은 도량을 느꼈어요. 우리는 진짜로 생활의 즐거움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고 말했다.

남편의 변화를 본 爱蒂特는 한달 후 万海姆시에서 꾸린 파룬궁 9 일반에 참가하고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세 딸도 선후 《전법륜(转法轮)》과 기타 파룬궁 서적을 보고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했다.

독일에서 어떤 아이는 흡연하고 심지어 마약 독품을 흡인하고 있다. 17 살 큰 딸 카洛琳娜도 이런 나쁜 습관에 물들었다. 하지만 수련 후 아이는 변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자연스럽게 담배를 끊고 경한 마약품도 끊었다. 어머니 爱蒂特는 더는 근심걱정하지 않게 되였다. 또 당시 다른 두 어린 딸은 겨우 12 살과 9 살이여 아직 담배를 접촉하지 않았기에 수련 후 당연히 더욱 접촉하지 않고 역시 독품을 멀리했다.

금년에 8살인 막내 아들 约书亚가 태여났을 때는 온 가족 모두 이미 파룬궁을 수련했다. 그러기 때문에 约书亚는 수련의 환경에서 자랐으며 그는 《전법륜(转法轮)》

이 책과 5조 느슨한 공법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 “내가 주 의해보니 그 5조 공법은 그를 놓고 말하면 매우 매우 중요하며 특히는 제 5조 공법 가부좌는 더 그리 했어요. 왜냐하면 매우 활발하기 때문에



련공하고 있는 두자매

가정중의 하나의 축소판이며 기타 4개 가정의 정황도 기본상 이러하다. 위로는 80세 모친, 아래에는 몇 살 되는 이모 손녀까지 언녕 약물과 병원을 멀리했다.

십여년간 병원에 가 본적이 없던 나의 아이는 요전에 동학과 함께 한 성급 큰 병원으로 신체검사하러 갔었다. 돌아온 후 경탄하면서 나한테: “병원에 사람이 그렇게도 많을 줄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마치 장터같았어요! 나는 남들도 우리집처럼 그다지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라고 말하자 나는 말했다: “속인의 생로병사는 정상적이다. 특히 오늘날 중국 사회는 중공의 무신론의 독해하에 사람들 도덕이 내리막질하여 천화인재가 부단히 나타나고 있다. 환경 오염이 엄중하고 식품 안전에 보장이 없으며 게다가 사회는 공평, 정의가 결핍하기에 사람마다 심리 평형을 잃고 백성은 생활 압력이 크기에 병에 걸린 사람은 당연히 더욱 많아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수련하지 않고 대법을 믿지 않았다면 그들과 같을 것이다!” ◇

독일 사람 온 가족 6식구 파룬궁을 수련

독일 사람을 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수선 그들은 엄격하고 융통성이 없기에 그들에게 새로운 사물을 접수하게 하려면 아마 매우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파룬궁은 독일에서 도리여 기타 100여개 나라와 마찬가지로 널리 환영받고 있으며 매개 성시에 거의 모두 파룬궁 련공점이 있다.

독일의 海德堡에 거주하고 있는 胡伯特·科尔普 온 가족 6식구는 모두 파룬궁을 수련하고 있다. 줄곧 중국문화에 마음을 기울리고 있던 胡伯特는 파룬궁이 널리 독일에까지 전해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인츰 수련하기 시작했



파룬궁을 수련하는 6식구 가정

다. 시댁 가족들은 모두 나를 매우 존중하고 웃음으로 맞이했다. 집에 들어서면 시어머니는 이것 저것 물으면서 나를 집에 오면 힘껏 일을 한다고 자랑했고 시아버지도 얼른 차를 부어 나를 마이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나의 말을 따랐다. 내가 대법의 진상을 말해도 그는 찬성했고 그런 악한 말을 하던 시아버지가 그야말로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온 가족은 모두 내가 잘하고 있으며 마음 씨 곱다고 칭찬했다. 특히는 아주버님과 맏 동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친 눈으로 여러번의 가정 모순의 마난을 목격했고 대법 책도 보았기에 일부 법리를 알게 되었다. 나의 선량하고 인내성 있는 양보와 넓은 도량에 대해 매우 탄복하면서 여러번 가족들과 공개장소에서 나를 칭찬했다. 가족들은 또 나를 젊고 건강하며 유쾌하고 흥조가 비낀 얼굴에 주름이 없이 정신이 충만되어 있다고 칭찬했다. 가족들은 대법의 아름다운 신기함을 견증했다! ◇

▶ 가홍유도

家兴有道

대법을 수련하니 온 가족 한 없이 기쁘다

속담에 “강산은 바꾸기 쉬워도 타고난 본성을 바꾸기 어렵다”고 한다. 나는 이 말은 파룬궁 수련생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오직 진정으로 대법을 수련한다면 좋지 않은 본성을 꼭 좋게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 나는 성격이 조급하고 인내성이 없고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대노하는 사람이였다. 파룬따파를 수련해서부터 지금까지 십 여년간 나는 남편과 종래로 다투고 싸운 적이 없다. 그는 지금 두 부부가 싸우는 일을 보았거나 들었다면 모두 불가사이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말하는 이 “온 가족”은 6개 소가정으로 이루어진 대 가정이며 식솔은 도합 20명이다. 온 가족 남녀로소 모두 수련하거나 혹은 파룬따파를 믿고 있다. 파룬따파가 우리 이 대 가정의 모든 성원에게 가져다 준 복분은 이루다 말할 수 없다. 파룬따파 불광(佛光)이 널리 비치니 십여 년간 우리 온 가족은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웠다.

◆ 남들 부러워하는 다섯 금화

우리 집 다섯 자매를 마을의 이웃, 동창생, 친구들은 모두 습관적으로 “다섯 금화”라고 불렀다. 우리가 파룬따파를 수련한 후 집집마다 원만한 행복으로 한 없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모두 매우 부러워했다.

우리 다섯 자매, 그리고 모친은 젊었을 때 모두 비교적 쇠약한 체질이였다. 성격상 어떤 사람은 너무 내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 승벽심이 강하고 가정 성원지간, 고부사이 그리고 남들간의 모순은 때때로 발생하여 신체적인 고통 심성의 시달림은 그칠 줄 몰랐다. 참으로 행복한 생활은 3일도 안 되어 삶은 매우 고통스럽고 매우 힘들었다. 대법을 수련해서부터 사람마다 신체가 가쁜하고 건강했다. 우리는 모두 “쩐, 쌐, 런(真、善、忍)”에 따라 자신을 요구하고 일을 함에 있어서 먼저 남을 생각하여 다년간 가정은 따뜻하고 화목했다. 고부가 화목하게 지내고 자녀마다 모두 성실하고 선량하고 학업이 우수하고 철이 들고 효도했다. 겨우 5살인 외 손녀마저 자기전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에게 발 삭을 물을 가져다 준 다음에야 자기가 췄었다. 보통 사람의 모든 번뇌, 고민, 고통, 질병은 이미 우리를 멀리 떠났다.

◆ 남편은 남들 부부가 싸우는 것을 보고 불가사의라고 생각했다

수련전, 나는 성질이 급하고 참을성이 없고 곧잘 성내고 발끈 화를 내는 사람이며 남편과 같은 직장에서 일했다. 그때 아이는 어리고 가정일도 많고 자신의 체질도 쇠약했다. 남편은 가정일을 하려 하지 않았다. 매일 사업과 가정일로 힘든 나는 늘 기진맥진하고 마음이 초조하여 심리 평형을 잡지 못했다. 게다가 나 자신도 중공 사당이 부어 넣은 투쟁철학의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승벽심이 강하기 때문에 늘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면서 끝없이 다투어 정말로 사흘에 한번 말싸움 닷새 한번 크게 싸웠다. 화가 치밀면 꺼리낌 없이 사람을 자극하고 사람을 상해하는 그 어떤 말이던 다 뱉으면서 남편과 아이의 감수는 추호도 돌보지 않았다. 아이는 지금까지도 내가 그때 리성을 잃은 행위에 대한 기억이 생생해 두렵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면서 지금의 나는 이전과 정말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파룬따파를 수련한 후 나는 사부님의 요구에 따라 하면서 어디에서나 모두 좋은 사람이 되려 하고 일을 함에 있어 먼저 남을 생각하고 손해를 보거나 고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직장에서는 본직 임무를 잘 완성하고

집에서는 가정일을 많이 맡아할 뿐만 아니라 일을 해도 부담스럽지 않고 즐거워 마음은 상쾌했다. 대법을 수련한 후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해 졌기에 무엇을 하던 얼마 동안 하던 힘들지 않았다. 지금 나는 비록 50 이 넘었지만 18 살 때의 신체보다 더 좋아진 것 같다. 성격도 천지가 뒤집힐 정도의 변화가 생겨 과거의 나는 이미 존재하지 않으며 나는 지금 남편을 돋고 아이를 가르치는 따뜻하고 상냥한 현처량모로 되었다. 속담에 “강산은 바꾸기 쉬워도 타고난 본성은 바꾸기 어렵다”고 하는데 진심으로 대법을 수련하면 좋지 않은 본성은 꼭 좋게 변할 수 있다. 대법을 수련해서부터 지금까지 십여년 간 나는 남편과 종래로 다투고 싸운 적이 없다. 남편은 지금 부부가 싸우는 일을 들었거나 보았다면 불가사의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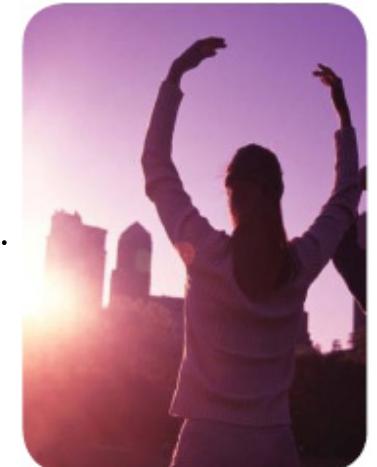
◆ “병원에는 왜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

나는 1994년에 파룬따파를 수련하기 시작했다. 그 때 아이는 8살이 였다. 파룬따파를 수련하고 몇 일 안되어 다년간 나를 괴롭히던 심한 신경쇠약, 만성위염, 식물신경 문란, 부산과 질병등은 깨끗이 사라져 정말 무병으로 온 몸이 가벼웠다. 성격도 과거의 거칠고 급하며 쉽게 화를 내던 것이 조급해 하지 않고 따뜻하고 상냥하게 변했다. 남편의 신체 역시 저도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생겼다. 원래 앓던 질병은 죄다 치료하지 않고 저절로 나았으며 감기마저 보기 드물었다!

남편과 아이는 나의 변화로부터 대법의 초상함과 아름다움을 보았기에 1999년 7월 20일 이후, 중공사당이 천지를 뒤덮듯한 파룬궁에 대한 박해에도 그들은 모두 거대한 압력을 무릅쓰고 나더러 수련을 견지하라고 고무격려 할수 있었다.

아이도 내가 수련한 후 점차 수련의 길에 들어섰다. 10여년간 종래로 병에 걸리지 않았다. 신체는 한 방면이고 아이의 성격변화도 가족들한테는 놀라운 기쁨이였다. 아이는 과거 겁이 많고 내성적이고 곧잘 화를 내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도처에서 남을 위해 생각하는 철들고 명랑한 아이로 변했다.

우리 이 세 식구 가정은 20명에 가까운 대



파룬궁 제2조 공법